시진핑 "일본, 군국주의 침략 역사 반성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을 향해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라" 고 촉구했다.

3일 '뉴스1' 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항일전쟁 승리 75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정확하게 대하는 것은 양국 관계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정치적 기반"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9월 3일은 1945년 패망한 일본이 미 전함 미주리함상에서 항복 문서에 공식 서명한 날이다.

▲ 항일전쟁 승리 75주년을 기념식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중국 CCTV화면 캡처

시 주석은 "중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다. 중·일 간 평화 우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부합한다." 면서도 "지난 일을 잊지 않으면 훗날의 귀감이 된다." 고 지적했다.

시 주석이 항일전쟁 승리 기념 행사에 참여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시 주석의 행사 참석은 미·중 갈등 국면 속에 악화된 중일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인 언사는 없었지만, 미국 편에 선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은 이날 미국을 겨냥한 발언도 함께 내놨다. 그는 "중국 국민들은 중국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의지를 중국에 강요하며, 다른 나라 국민들과의 교류 협력과 인류 평화 발전을 파괴하려는 자와 결코 뜻을 같이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반중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이 분명해 보인다.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재 점화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요구가 재점화됐다.

2일 '연합뉴스' 가 로이터 통신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겸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는 내년 자치의회 선거 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관련 법안 초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는 내년 5월 예정돼 있다.

스코틀랜드는 300년 이상 영국의 일원으로 지내오다가 2014년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시행했으나 독립 반대 55.3%, 찬성 44.7%로 부결됐다. 그러나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키로 하면서 SNP가 이끄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에 분리독립 제2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다. 당시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는 EU 잔류 지지가 62%로 훨씬 높았던 만큼 분리독립을 통해 EU 회원국으로 남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영국 조기 총선에서 SNP가 스코틀랜드 59개 지역구에서 무려 48석을 차지하자 SNP의 분리독립 추진에도 탄력이 붙었다. 다만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정책 대응을 집중하면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분리독립 추진 움직임을 일단 보류했다.

돈줄 마른 베네수엘라, 금 채굴 확대

미국 제재와 석유산업 쇠퇴 등으로 오일머니가 줄어든 베네수엘라가 금 채굴을 확대하고 있다.

1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현지 환경 사회단체 와타니바의 보고서를 인용해 베네수엘라의 광산 면적이 1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와타니바가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결과 광산 면적은 지난해 3월 3만3천926헥타르에서 올해 3월 11만6천655헥타르로 넓어졌다. 축구장 16만 개 면적이다. 지난 4월 정부가 5개 하천 지역에 새 광구를 허가했기 때문에 면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베네수엘라는 오랜 부실 관리로 석유 생산 능력이 급감한 데다 미국의 제재 강화가 이어지면서 석유 산업 수입이 크게 줄었다. 최근 석유 생산량은 194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그러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대신 금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금 광업 육성에 나서고 동시에 현금 확보를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을 이란과 터키 등 동맹국에 팔기도 했다.

베네수엘라에선 경제난 속에 너도나도 금 채굴에 나서는 '골드러시' 가 나타나고 범죄조직들이 불법 금 채굴에 뛰어들어 이권 다툼 속에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생겼다. 마두로 정부는 무분별한 금 채굴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블룸버그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정부가 금 광산에 장비를 제공하고 캐낸 금을 국영 광업회사의 시설에서 가공한 후 정부에 팔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분별한 금 채굴은 아마존 등 보호지역의 환경 파괴 우려도 키우고 있다. 환경단체와 야권 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앙헬폭포 부근의 환경도 광산으로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플러튼 | 세리토스 | 사이프레스 | 라팔마 | 부에나팍 | 라미라다 | 라하브라

REDPOINT REALTY

17년 탑에이전트 경험으로 잘 팔고 사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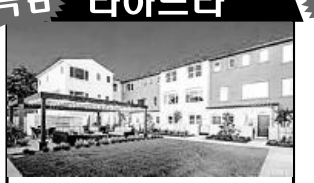
☑ 한국일보 칼럼니스트 (Since 2004~)
☑ 레드포인트 부동산 명예 부사장

독점 부에나팍 타운홈

방2 화2 게이트단지
로스코요테 골프장 근접, 하이실링
나무마루, 나무가 우거진 페티오
써니힐 하이, 렌트 ($2,700)
잘 나가는 투자용으로도
좋은 매물. 마켓에 없는 집
$619,000

독점 플러튼

Greens 단지내 가장 큰 모델
방3 + Den 화2.5 건평 2,070 SF
하이실링,베이윈도우,레세스라잇
탁트인 전망,발코니,플러턴 최고 학군
$689,000

독점 라하브라

2019년생 예쁜 새단지,
2,000sf, 방4 화3.5
업그레이드 많이한 새 집,
좋은 위치
$729,000

독점 부에나팍 창고 리스

8,800SF
5FWY와 Artesia Blvd가
만나는 상권 최고
사무실도 겸함
$11,000

독점 다이아몬드 바

방4 화2 리모델한 단층집
넓은 뒷마당 밝고 환한 남향집
리세스라잇,크라운 몰딩
좋은 학군
$789,999

사이프러스

방3 화1.5 탱글우드 타운홈
렉싱턴 주니어
사이프러스 하이
단지내 좋은 가격
$495,000

부에나팍

방2 화2,게이트단지
로스코요테 골프단지 근접
하이실링, 써니힐 하이
$579,000

플러튼

게이트 단지, 방4 화2.5
1998년생, 넓은 부엌, 마켓
샤핑센터 근접
단지 내 놀이터, 수영장
$747,000

카니 정 | DRE 01433245
714-244-7800
656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부에나팍 : $875,000 방4 화3, 2005년생 H mart 옆, 리세스라잇,써니힐하이
부에나팍 : $590,000 방3 화2.5, 1999년생 게이트 단지, 업그레드 많이 한 예쁜 집
라팔마 : $690,000 방4 화2, 단층집, 하이실링, 새마루, 리세스 라잇
라미라다 : $773,000 방3 화2.5, 게이트 단지,1997년생, 우드셔터, 골프단지 근접
라미라다 : $317,000 방1 화1, 시니어 타운홈, 24시간 시큐리티, 마켓 근접